

'85 트리오' KIA 신 공격라인으로 뜬다

이용규-용규놀이 '공격 침범' 역할 특출
나지완-한방의 위력 '호랑이 4번 본색'
김주형-6월 대반격의 원동력 '깜짝 활약'



'85 트리오' KIA 타이거즈의 신 공격 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월 긴 침묵에 빠져있던 KIA 타선이 부진에서 벗어나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전면에 나선 이용규의 부활 움직임 속에 4번 타자 나지완의 한방 그리고 하위타순에서 김주형의 '깜짝 활약'이 더해지면서 KIA 공격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톱타자, 중심타자 그리고 조커로 포진한 세 명은 1985년생 동갑내기 친구다. 이들이 신 공격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용규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KIA가 가장 바라던 신호다. 그동안 톱타자 이용규가 허무하게 돌아서면서 KIA의 공격도 좀처럼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이용규는 지난주 위기의 갈림길에서 만난 넥센을 상대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이끄는 등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 뛰여졌던 출루율에도, 부지런히 쌓아왔던 득점 수확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용규 스스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특유의 끈질긴 승부가 살아나면서 팀 공격에도 숨통이 트였다.

12일 경기에서도 톱타자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날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쉽게 타석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두 번째 타석에서 10구까지 가는 대결을 벌이며 상대 배터리를 공략했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희생번트로 공격을 이었다. 네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진루해 값진 득점도 올렸다.

중심에서는 4번 타자 나지완이 있다. 넥센전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올렸던 나지완은 12일 NC전에서도 결승 솔로홈런을 터트리며 한방의 위력을 발휘했다.

"야구하는 재미를 알아 가고 있다"는 나지완은 12일 현재 타점 4위(41), 장타율 5위(0.528), 출루율 6위(0.424), 홈런 8위(8), 타율 9위(0.317)에 오르는 등 4번 타자에 어울리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중심에서 나지완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김주찬의 복귀, 최희섭의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타선의 파위가 더해지고 있다. 나지완은 "조구부터 자신있게 내 스윙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타점에 육성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주형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수확이다.

최희섭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투입됐던 김주형은 5월 23일 한화전에서 1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뒤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예전과는 다른 꾸준함이 더해졌다. 15경기에 출전해 0.333의 타율(48타수 16안타)로 12개의 타점을 만들었다. 6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두 차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안정적인 1루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전력 외 인물에서 조커로 부상했다.

솔솔한 활약으로 1루수와 대타 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종길·김주찬·최희섭·이범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김주형은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주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치고 있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구 1위다투는 나지완 "150km가 그냥와서 맞췄"



① 덕아웃 말말말 ▲정신 차려. 이 녀석아= 12일 경기가 끝나고 감독실로 향하던 선동열 감독, 엔서니를 향해 웃으며, KIA는 2-0으로 앞선 9회 마무리 앤서니가 1실점을 한 뒤 2사 1·3루에서 이태원을 상대로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면서 어렵게 4연승에 성공했다.

▲인간이 기계보다 더 강할 수도 있지= 12일 소사의 피칭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 결과는 좋았지만 강속구를 바탕으로 한 육박지르는 피칭이 아니라 맞춰 잡으려는 피칭을 해서 어렵다며, 투수들이 편하게 던지려고 하면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져서 부상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상하네. 저쪽으로 잘 안치는데=12일 결승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 원래 좌중월로 홈런을 많이 치는데 외야 좌측에 있는 K3 존으로 홈런을 때렸다면서, 나지완은 홈런존 상공으로 3등짜리 급반지를 3개째 받았다.

▲나는 150km가 그냥 와서 맞췄=SK 최정재 사구 1위를 다두고 있는 나지완, 변화구가 아니라 강속구에 자주 맞는다며.

▲언제 잘 해봤어아조=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는 김주형,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포를 하나, 안타 하나=정희열 배터리 코치,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이용규의 얘기에, 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며.

▲어휴 공 던지는 게 더 편하조=방송 인터뷰를 할 때 어디를 봐야할지 모르겠다는 임준섭, 인터뷰보다 야구하는 게 더 쉽다면서.

▲먹는 게 자꾸 당기더라고요=한승혁, 키가 더 큰 것 같다는 얘기에, 프로 3년차인 한승혁은 1993년 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 류현진이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서 5회초 패트릭 코빈의 비활쪽 직구(사속 150km)를 밀어쳐 3루타를 만들고 있다. 최근 2경기째 승수를 쌓지 못한 류현진의 성적은 6승 2패를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첫 3루타... 7승 달성은 실패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26)이 메이저리그 데뷔 첫 3루타를 때리며 역전의 발판을 놓았지만 허약한 볼펜 탓에 시즌 7승 달성은 다시 실패했다.

류현진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11안타로 3점을 내줬다. 볼넷과 탈삼진은 각각 2개씩 기록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4-3으로 앞선 7회초 수비때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채 마운드를 크리스 위스에게 넘겼다. 하지만 위스도가 바로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승리를 날렸다. 다저스는 결국 연장 승부 끝에 12회에 6-8로 승리했다.

타석에서도 1-3으로 끌려가던 5회 2사 2루에서 직접 역전의 디딤돌이 되는 타점을 올리며 제 몫 이상을 해냈다. 올 시즌 9승 무패, 평균자책점 1.98을 기록 중이던 애리조나 원소 선발 투수 패트릭 코빈은 3루타로 두들겨 시즌 세 번째 타점을 뿜었다.

공·수에 걸친 활약에도 최근 2경기째 승수를 쌓지 못한 류현진의 성적은 6승 2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안타를 허용한 류현진은 "볼 스피드가 떨어지고 공이 가운데로 몰리다 보니 안타가 많았다"며 "모처럼 나를 쉬고 등관했다니 몸 상태가 전만큼 좋지 않았다. 연속 안타로 3점까지 준 게 아쉽다"고 밝혔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19~20일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2연전 중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FC 7경기 연속 무패 노린다

K리그 챌린지 14라운드
16일 고양HiFC 원정대결

광주 FC가 7경기 연속 무패를 노리며 고양 원정에 나선다.

광주 FC가 16일 오후 7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고양 HiFC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제14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침묵의 3·4월을 뒤로하고 거침없는 기세로 5·6월을 보내고 있는 광주는 무패행진을 거듭하면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라운드 광주가 1위 팀 경찰 축구단을 상대로 홈 첫 승을 장식한 사이 3위 부천은 안양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승점 차(4)가 좁혀졌다. 부천을 턱밑까지 추격한 광주는 고양전에서 그 기세를 이어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놓겠다는 각오다.

부상에서 돌아온 수비수 정우인이 이번 고양전 키플레이어다. 정우인은 부상 복귀 전이었던 지난 경찰 축구단과의 승부에서 100%의 기량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유종현·임하람과 3백을 구성하면서 올 시즌 첫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는 정우인을 중심으로 위기의 상황에

서는 양 윙백까지 가세한 5백을 사용하면서 상대의 공격 루트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중원의 해결사 김은선과 함께 상승세의 정경호가 버티고 있는 허리도 든든하다.

공격 전면에는 김호남이 있다. 오른쪽 윙백에서 측면 공격수로 전진 배치된 김호남은 여범규 감독의 믿음 속에 잠재된 공격 본능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체력'이 승패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직적인 플레이를 과시하는 고양은 매 경기 빠른 패스를 통해 특유의 팀 걸러를 보여줬지만 후반 초반 이후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해왔다.

공·수에서 뒷심이 강해지고 있는 광주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K리그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광재가 컨디션을 회복했고 용병 알렉스의 문전 집중력도 뛰어나다. 고양은 상주와의 앞선 경기에서 비록 역전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우승후보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를 펼치며 예상치 못한 경기력을 발휘했다.

빠른 축구를 구사하는 두 팀은 최근 상승세까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후반 이후 체력과 경기 집중력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